

蘇 聯 紀 行

本會會長 崔 鍾 浣

이번에 소련에 가게 된 것은 韓國工業標準協會에서 準備하여 18名이라는 많은 人員이 다녀 오게되었다.

소련 旅行은 1977년 國際電氣會議에 참석하기 위해 다녀왔다. 두번 旅行 모두 訪問地는 모스크바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좀 색다른 코스로 旅行하면서 소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번 旅行 經路는 서울에서 日本 니이가다로 가서 그곳에서 소련 항공기 便으로 약 2시간 비행하여 하바로프스크에 到着하였다. 이곳에서 日程을 마친후 7시간 비행하여 타시켄트에 도착하였고 다음 목적지인 티베리市에서의 日程을 마친 一行은 키에프, 레닌그라드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소련에서의 日程이 끝난 후 부다페스트, 런던, 東京을 거치는 16日間の 旅程이었다.

이번에 다녀온 코-스는 소련의 南部 主要都市를 모두 거쳤고 다시 西部에서 北上하여 키에프를 통해 레닌그라드로 해서 中心部인 모스크바에 갔으므로 소련 主要都市는 모두 거친 셈이다.

一行이 니이가다를 떠나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육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바로프스크에 到着할 때까지 집 한채 없었고 전

부 산으로 길도 없고 울창한 森林뿐으로 소련이 韓國에게 시베리아를 좀 開發해 달라는 것을 理解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바로프스크空港에 到着해 보니 國際空港이지만 施設이 빈약하고 체크 아웃하는데 2時間 정도 걸렸다.

아시다시피 소련은 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이 公式 名稱이다. 러시아라는 말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지금의 소련은 15個 共和國으로 構成된 聯邦體이고 人口는 2억7천만 또는 3억이라고 하는데 3억 人口중 半인 1억5천만명이 러시아人으로서 소련 聯邦의 최대 共和國인 러시아共和國을 構成하고 있고 나머지 半인 1억5천만명이 14個 共和國으로 러시아人이 아닌 他 民族으로 構成되어 있다.

하바로프스크는 極東에 위치하지만 소련에서 主動的 役割을 하는 러시아共和國에 속해 있으며 極東地區의 行政, 産業, 交通의 中心地인 都市이다.

이 都市의 開拓은 1652년에 하바로프스크라는 探險家가 要塞를 만든 것이 시초로서 蘇滿國境의 우수리江과 아무르江이 接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要地에 位置한 都市이다. 하바로프스크는 오츠크海의 漁業, 中心地로서 더



젤 엔진, 造船, 船舶修理 등과 함께 木材加工과 사할린에서 나오는 原油의 精油, 鑛産物에 대한 製鍊 등이 발달한 工業 都市이다.

하바로프스크는 후에 中國과의 條約에 의해 한 때 中國에 歸屬된 때가 있었으나 1858년 正式로 別 큰 印象은 없고 우리가 그곳을 出發하던 날 北韓의 木材技能工 20余名이 1年間 作業하고 귀국하는 것을 만났는데 모두 김일성 像을 달고 있었으며 引率者만이 우리와의 對話에 應하였다.

이번 旅行에서 느낀 것은 옛 러시아 帝國이나 지금의 러시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으로 러시아인이 시베리아로 進出하던 1652년에 우리 東洋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누르하지가 淸나라 北京을 占領해서 이제 中原에 막 政權을 樹立하기 시작한 무렵이고 우리나라는 명나라 대신 淸나라를 宗主國으로 인정하고 朝貢을 하기 시작한 그런 時期이고 南人 西人の 黨派싸움이 한창인 때였다.

이때 러시아인들은 코사크人 騎兵隊를 앞세워 가지고 이 地域의 原住民인 蒙古族에 속하는 遊牧民, 漁撈民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회유하여 이 땅을 測量해서 러시아領土로 國際機構에 등록해 자기네 領土化하였다. 그러나 滿州에서는 이미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定着해 있어서 러시아인이 들어 오려니까 왜 남의 땅에 들어 오느냐고 抗議하니까 못 들어갔다. 遊牧民이나 漁撈民은 領土의 概念이 없어서 一〇千哩로 侵略해서 러시아 땅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 祖上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다음 訪問한 타시켄트는 우즈베크 共和國 首都이다. 우즈베크共和國의 지금 人口가 1千萬名에 가깝고 타시켄트市 人口가 200萬名으로 걸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하지만 그 나름대로 近代의인 都市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 도시는 6,7世紀에 모슬람의 都市로 생겨나서 8世紀에 아랍의 支配를 받게 되어 실크로드의 經유지로서 중요한 商易都市로 發展하다가 13世

紀에 들어와서 몽고족인 징기스칸의 支配를 받았고 15世紀에 들어와서는 타타르族의 支配 받다가 결국 1865年 러시아에 의해 占領된 곳이다.

1865년은 中國이 帝國主義 侵略을 받던 때이고 日本은 明治維新 時代로서 그때 러시아인은 南西로 進出하여 타시켄트 一帶를 占領하였던 것이다.

타시켄트는 砂漠에 建設된 都市로서 天山山脈에서 70 km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 눈이 덮힌 3,000~4,000 m의 산이 보이고 눈이 녹아 내려오는 河川의 물로 灌溉事業을 해가지고 農事를 짓는 地方으로서 타시켄트市는 工業도 發達되어 있었다.

이 타시켄트市 주변에는 한국 사람이 約 30 萬名 살고 있다. 이들은 第2次 世界大戰開始 直前に 沿海州에 살던 사람들을 소련에서 強制 移住시킨 人들로서 初期에는 農業에 從事하며 고생했으나 지금은 모두 生活이 安定되어 있었

다. 우리가 訪問한 集團農場은 人口 2萬名으로 勞働人口는 8千名 정도 되었으며 이 農場은 한국 사람이 적고 우즈베크사람이 많아 農場의 共產黨書記長은 한국 사람이고 農場長은 우즈베크 사람이었다.

우리가 타시켄트에서 우리말 큰辭典, 가요 테이프, 觀光책자, 시계 등 선물을 주고 왔는데 그곳 同胞들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개를 한마리 잡았는데 음식에 양념이 신통치 않고 멸진 국에다가 개고기를 넣어 냄새가 나지만 맛이 어퍼냐고 묻기에 맛이 참 좋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타시켄트地方에 사는 한국 사람의 生活相은 氣溫이 영하 20度까지 내려간다는데도 便所가 집 밖에 있는 在來式이었고 우리를 제일 잘사는 집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았는데 냉장고도 있고 生活은 그저 굶지 않고 밥 먹고 살더라는 印象을 받았다.

타시켄트地方에 살고 있는 우리 同胞를 보면





서 13世紀에 蒙古族는 大帝國을 建設하기 위해 징기스칸의 西征이라는 歷史에 記錄되는 偉業을 이루었으나 나라없는 百姓이었던 우리 同胞는 沿海州에서 타시켄트地方으로 他意에 의해 強制 移住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서글픔을 禁할 수 없었다.

다음 세번째로 訪問한 곳이 티베리市이다. 티베리市는 코카서스地方의 그루지아共和國의 首都이고 人口는 200萬名으로 참 아름다운 都市였다. 이 그루지아共和國은 스탈린의 고향으로 公園에 가보니 銅像은 없고 基壇만 있어서 물어보니 그곳에 스탈린 銅像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었다 한다. 스탈린은 그루지아出身인데 그루지아 사람은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아라비아文字 같은 文字를 쓰는 中東族 사람들인데 여기 出身인 스탈린이 소련을 30년간 支配하였다. 스탈린時代의 秘密警察 두목 베리아도 그루지아 사람이다. 스탈린의 얼굴을 보면 머리색이 검고 西洋사람같은 데가 없는 것은 中東사람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루지아共和國도 옛날에는 王國이었으나 1801

년 帝政러시아에 占領되어 지금은 소련 聯邦의 한 共和國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訪問한 곳은 키에프로서 우크라이나共和國 首都이다. 人口는 5千萬名 정도로서 산이 없고 넓은 平野地帶로서 우크라이나共和國의 面積이나 人口가 佛蘭西 한 國家와 맞먹을 수 있다 한다. 우크라이나인은 슬라브族으로 소련의 고르바초프書記長도 슬라브族이지만 이 우크라이나共和國에서 커가지고 지금 소련의 最高 指導者가 되었다고 한다.

키에프市는 10世紀 頃에 都市가 생겼는데 例外없이 13世紀 蒙古族의 侵攻으로 100餘年間 그 支配를 당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영화나 오페라로 보았던 隊長 부리라라는 作品에 나오는 코사크 騎兵隊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로써 우크라이나가 蒙古族 支配 후에 폴란드 支配를 받다가 1667年 帝政러시아와 폴란드戰爭 후 러시아에 속하게 되었고 결국은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進出할 때 그 앞장을 서게 된 것이다.

기에프市는 市街가 아름다웠고 폭 20~30km가 되는 그린 벨트가 있어 50m씩 되는 아람드리 소나무 숲이 정말 부러웠다.

다음으로 訪問한 都市가 레닌그라드로서 북극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으로 1년에 日照期間이 32일 밖에 안되고 겨울이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인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방이지만 인구가 500만명이다.

북극권에 있는 5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레닌그라드를 거대한 산업도시로 건설한 러시아인의 강인한 開拓精神이랄까 인내성에 대해 재평가해야 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레닌그라드는 200년전 帝政러시아의 피터大帝가 후진국인 러시아를 西歐化해야 겠다 그러려면 海洋으로 進出해야 한다. 그래서 유럽에 가까운 피터스부르크 지금의 레닌그라드에 首都를 옮기고 유럽의 建築家를 데려다 首都를 건설했던 곳이다. 러시아의 近代化를 이룩한 사람은 피터大帝로서 레닌그라드는 유럽의 어느 都市 못지 않게 建物이 아름답고 그곳의 썬머 팔레스타는 큰 宮殿은 噴水가 몇 100個가 있는데 이 噴水는 自然落差에 의해 물이 나오도록 된 아름다운 宮殿으로서 觀光客으로 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었다.

모스크바에 대해서는 많이 紹介가 되어 있어 말씀 안드리겠고 소련에서의 전체적인 인상은 모든 시설들의 準備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建設工事의 步道블럭 하나에서 부터 큰 建物の 大理石 깎아 붙이는 것까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스크바를 떠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탄 世界같구나 하는 것이었다. 내가 15일간 소련에 머물다가 나왔는데 무엇을 먹었느냐 식료품 원료를 먹고 왔구나, 부다페스트에 오니까 요리를 먹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헝가리는 조그만 상점도 사유제가 인정되고 있고 굉장히 西歐化 되어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소련군의 차량을 보았는데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소련군이 나가야 우리가 잘살텐데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 부다페스트는 정말 서구화된 세련된 도시로 상당히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

우리가 여행하는 도중 工場을 두 군데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소련에 있는 트럭공장의 경우 1인당 연간 매출고가 미국 돈으로 3萬弗 정도 되는것 같았고 우리의 生産性的 1/3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부다페스트에서는 공장에 가니 낮에 낮잠 자는 사람도 있고 공장 벽에 여자 나체사진을 쪽 붙여놓고 있어서 공장장에게 물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일한다고 떼어도 자꾸 붙친다는 대답을 듣고 나체사진 붙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는 이미 100년 200년전에 방대한 러시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남을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다른 나라보고 침략주의 제국주의 國家라고 하지만 자기나라가 제국주의 제일 많았던 나라였다는 사실이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소련사람들이 자기 祖上에 대해 남의 나라 침략했다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祖上을 가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소련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소련은 廣大한 國土와 풍부한 資源, 強大한 군사력이 있고 人工衛星을 띄우고 있지만 일반 消費材나 間接施設들이 不足하고 質도 낮은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인식 뒤에 숨어있는 소련사람의 모험심, 개척심, 강인한 의지, 팽창하고자 하는 의지, 인내를 가지고 그 광대한 國土를 개척한 祖上의 功지를 업고 있는 소련사람의 功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소련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던지 交渉을 해야지 단순하게 소비제품 잘 못 만든다. 요리 잘 못한다. 이러한 次元에서 소련사람을 이해했다가는 우리가 잘못 理解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感을 이번 旅行에서 느꼈다.